

충남안전체험관 찾는 방문객 대폭 늘어

윤신영 기자 | 승인 2024.11.03 09:32

올 3분기 체험객 전년 동기 대비 4700명 증가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3분기 안전체험관 체험객 수가 2만 7489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700여 명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3분기 안전체험관 체험객 수가 2만 7489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700여 명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체험 대상은 초등학생이 38.2%(1만 490명)로 가장 많았고 △성인 27.1%(7436명) △유아 17.3%(4759명) △외국인 6.3%(1721명) △장애인 5.4%(1488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 이벤트 26.6%(7323명) △사회재난 24.3%(6671명) △자연재난 23%(63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예약 현황은 단체 69.4%, 개인 30.6%로 단체 예약이 2배 이상 많았고 체험 인원은 남성 53%, 여성 47%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충남 체험객(2만 749명) 중 천안(63.1%, 1만 3099명)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고 아산(24.3%, 5033명)이 뒤를 이었다.

또 방문객 2만 7489명 중 300명 표본조사 결과, 98%가 '만족한다'라고 답해 안전체험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체험시설 선호도 조사 결과에선 고층 화재 체험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지진 체험(17%), 응급처치 실습(14%)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박창우 도소방본부 안전체험관장은 "체험객 증가는 평상시 안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신영 기자 djysy@daejonilbo.com